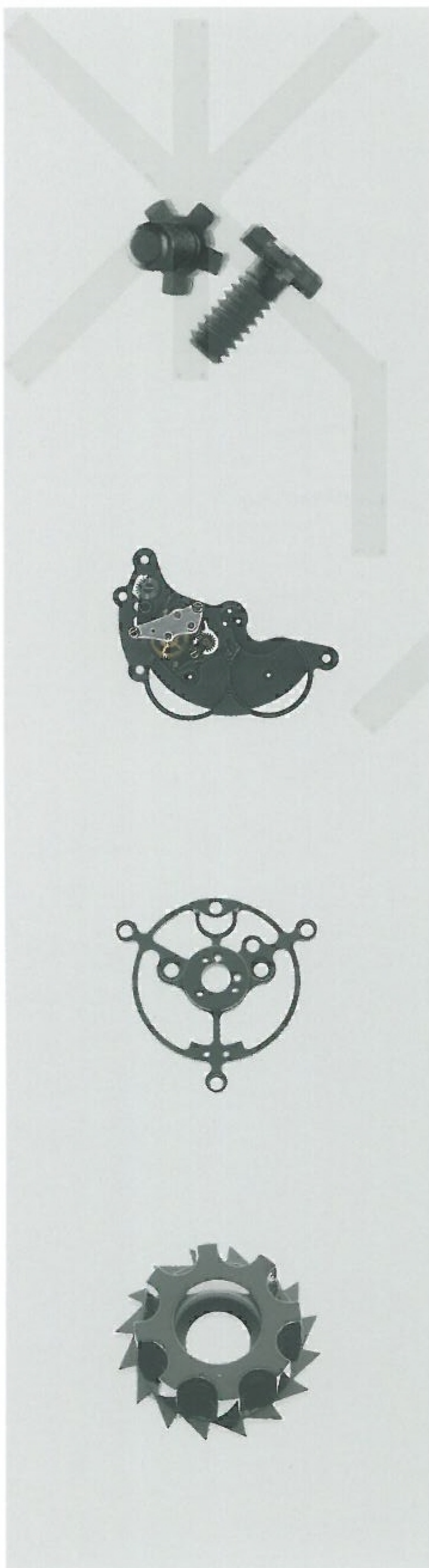


NOBBLIAN

THE SHILLA

ISSUE 165 / APRIL / 2014



INERTIA

EDITOR AHN SANGHO PHOTOGRAPHER JOUNG JUNTAEK
COOPERATION KUKJE GALLERY(82-2-735-8449)

문성식의 그림을 보고 나서 걸었다. 가슴이 그림을 생각하며 무작정 걷기 시작했다. 이성복의 시 '어제는 하루 종일 걸었다'의 부분을 떠올렸다. "어쩌면 일이 생각하는 만큼 잘못되지 않은 거라고/ 생각도 했다 어차피 마찬가지로/ 가슴은 여러 개로 분가分家하여 떼지어 날아갔다." 삶은 일상의 반복이다. 우리는 그 안에서 소소하지만 소소하지 않은 이야기를 만들어낸다. 문성식이 바라보는 지점은 거기에 있다. 자신이 본 것들, 경험한 것들, 그리고 체화한 감성들이 풀어져 있다. 어쩌면 일이 생각하는 만큼 잘못되지 않은 거라고 느껴질 감성들이다.

종로구 부암동에 있는 문성식의 집 거실에는 본인의 초기작이자 체화의 출발점인 '과부의 집'이 걸려 있다. 캔버스에 연필로 그린 이 작품에는 마당이 너른 단층의 시골집이 있다. 집 현관은 거실이 바로 연결된 큰 미닫이문이다. 과부가 미닫이문을 활짝 열고 걸터앉아 있다. 눈이 쾅한 것이 실의에 빠진 얼굴이다. 거실에 걸린 액자는 남편의 생전에 찍은 영정 사진 같다. 마당 한구석에 널브러져 있는 똥개도 마찬가지다. 기운이 없다. 아니, 어쩌면 그저 햇살을 받으며 무심하게 잠을 자고 있을지도. 문성식이 말을 건넸다. "제게 큰 의미가 있는 그림이죠. 평생 간직할 겁니다." 그는 아마 이 작품을 그리기 위해 예전에 자신이 본 어떤 순간을 기억에서 끌어 올렸을 것이다. 그의 작품 중 상당수에서 이런 시골의 정서가 묻어난다. 지방 소도시 경북 김천에서 나고 자란 영향이 크다. 사실 그가 세간의 입에 오르내리게 된 것은 자연과 인간의 만남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다룬 작품 '정원 시리즈'를 내고부터였다. 깔끔하게 가지 친 정원에 나무만 있지만, 인간이 저지른 아이러니한 상황과 욕망이 투영된 그림이었다. 논리와 제작의 개념이 차지하는 비중이 컸다. 2005년에는 베니스 비엔날레 한국관에 역대 최연소 작가로 참가해 큰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전환점이 생겼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정원만 그리는 작가의 미래는 생각해 봐도 끔찍했죠." 이후 2011년 국제갤러리에서 열린 개인전 <풍경의 초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다. 드로잉 덕분이었다. 그래서 대표작도 '별과 소쩍새 그리고 내 할머니'다. 그의 드로잉에는 오랫동안 숙성되어 나온 사건의 본질을 관통하는 묘사가 있다. 그 직관의 힘 속에 공감미가 존재한다. 하지만 그는 드라마적인 요소가 들어 있는 드로잉과 풍경을 거쳐 지난해 두산갤러리 뉴욕에서의 전시를 통해 또 다른 면모를 드러냈다. 이 전시에서 그가 바라보는 지점은 사람이다.

"한동안 '과부의 집'을 그린 시절이 그리워서 자꾸 과거로 돌아가려고 했어요. '왜 지금은 사각사각한 느낌이 안 나고 비릿할까?'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제 그림이 풀 보기 싫었어요. 사람들의 기대는 부담스러운 데다 왜 '과부의 집'처럼 순수한 그림이 안 될까 싶었죠.

한 2~3년 과거로 회귀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러다 문득 생각이 들었죠. '아, 앞으로 가야 하는구나. 다른 세계로 가야 하는구나.' 그래서 '노인'이나 '늙은 아들과 더 늙은 엄마' 같은 그림이 나오게 됐습니다." 여전히 그는 인간의 드라마와 생로병사, 욕망에 대한 관심을 놓지 않고 있다. 이전까지가 연필로만 드로잉을 했다면 이제는 붓으로 드로잉한다. "연필이 너무 답답했어요. 유연성이 없어서요. 대신 붓과 물은 유연이 많아요." 현재의 초상화 시리즈의 기술적 시작이었다. 그리고 여전히 그는 창창하게 현재 진행형이다. 예전처럼 뒷걸음칠 때도 있겠지만 앞으로 나아갈 것이다. 그건 꾸준함의 관성이다.

요즘 문성식은 부암동과 사직동을 오가며 걷는다. 이 걸음에는 까닭이 있다. 2년 동안 지병처럼 앓던 어지럼증을 치료하기 위해서다. 그래서 올해 열릴 예정이던 두산갤러리에서의 전시도 내년으로 미뤘다. 인터뷰도 원래 그 전시를 프리뷰하려는 의도였지만 한참 후를 알리게 됐다. 그래도 그가 걸어 다니는 사이에 어떤 논리적 성취나 회화적 성취의 계기가 있을지도 모른다. 기다림도 지겹지는 않다. 기대도 된다. 왜냐고? 서두의 시 마지막 문장으로 답하겠다. "다만, 까닭을 알 수 없이."

The place is going forward. There are times when he steps back, but he is always moving in a forward direction. Just like his drawings.



INERTIA

EDITOR AHN SANGHO PHOTOGRAPHER JOUNG JUNTAEK COOPERATION KUKJE GALLERY(82-2-735-8449)



“That day like all the others, evening turned into night and the numerous stars shined brightly in the darkness. The forest green trees on the mountain that were visible during the day had become one with the darkness. Somewhere from the darkness came the sound of an owl. The black sky, sparkling stars, hoot from an owl on the distant mountain, and the last image I had of my grandmother that day—all of these things seemed like they had come from another world and these out of place, inconsequential things became my feelings for that day.” – Sungsic Moon’s Artist’s Note from his work “Stars, a Scope Owl and My Grandmother.”

Sungsic Moon recently returned from New York to Seoul. That is because of DOOSAN Gallery New York’s decision to hold a solo drawing exhibit of Moon entitled “Sungsic Moon’s Drawing.” He was quite uncomfortable for a time because of his chronic vertigo. It was made worse by the fact that he was overseas. However, the people in New York who viewed his exhibit had an entirely different experience. Sungsic Moon began to attract notice when his works were presented in the Korean Pavilion at the Venice Biennale in 2005. Following his solo exhibits at the Kukje Gallery in 2011 he rose to prominence among contemporary Korean artists. His drawings exude the sentiments of rural life in Korea. This is largely in part to the influence of the small town of Gimcheon, where he was born and raised. His pictures contain things which he experience directly. His drawings depict a penetration of the duality of essence. His intuitive strength lies in people as his works contain sentiments that anyone can relate to. However, through his exhibition in New York, where his drawings contained dramatic contents and scenery, he revealed a different side of himself.

“I depicted many stories of people through drawings. But after you draw pictures in a

similar style for an extended period of time you grow tired of it. There was also a time that I tried to return to my original drawing style because I liked it so much. But I was left to wonder why that picture style failed to elicit the same fresh feeling it had when I’d originally drawn them. I really didn’t like my drawings at that time. That’s when I realized that I needed to move forward, to push into a different world. It was from this realization that the works for the New York exhibit came forth. They are different from anything I’ve ever done before. They deal with the issues of human drama, birth, old age, sickness, death, desire, etc. That’s where my interest lies these days..”

That’s why when one looks at his works like “Youth”, which depicts the love and pain of separation in youth, or “Old Son, Older Mother”, which depicts an old man holding his elderly mother and staring at her with sorrowful eyes, we feel a sense of sadness and loss that reveals an undeniable fate of humanity. The pictures transformed from stories of people in the countryside to those living in a more urban environment. While the residential environment for his subjects has changed, his penetrating vision remains in the same place—that is questions about humanity and a general interest in the world. Ultimately within this framework an extremely realistic story unfolds.